

한평생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4)

민족대단결의 빛나는 장을 마련해주시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사에는 범민족대회가 자랑스럽게 아로새겨져있다. 1980년대말, 1990년대 초 남조선당국은 7.4공동성명의 정신에 배치되게 《북방정책》과 《(두개 조선)의 국제적합법화》를 내놓고 분별연구고착화책동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하면 북남민간단체들사이의 접촉과 래왕도 가로막아나섰다.

이어 남조선당국은 평양을 방문하였던 문익환목사와 《전대협》 대표를 철창속에 가두고 참을수 없는 박해를 가하는 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조성된 정세는 북과 남, 해외에서 사는 모든 조선사람들이 서로 연대연합하고 보조를 같이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행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러한 정세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민족대단결을 위한 북과 남, 해외의 3자련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이를 위해 1990년 8월 판문점에서 조국해방 45돐을 맞으며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북, 남, 해외의 통일운동단체들과 각계각층 대표들이 참가하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1차 범민족대회를

를 성대히 진행하도록 세심히 지도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관심과 보살핌속에 1990년 8월 13일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개막식과 《조국통일촉진 백두-한나대행진》출정식이 성대히 거행되게 되었다. 그리고 8월 15일에는 민족분열의 비운이 서려있는 판문점에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1차 범민족대회가 민족공동의 역사적인 회합으로 성황리에 열리었다.

범민족대회에서는 대표들의 일치된 의사에 따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문제를 대회의정으로 상징시켜 토의하였으며 대회의결의문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북남당국과 유엔사무총장, 미국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와 일련의 문건들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제1차 범민족대회와 그후 해마다 진행된 범민족대회를 계기로 삼천리강토에는 통일운동의 격류가 세차게 굽이쳤다.

그러던 우리 겨레는 너무도 뜻밖에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하게 되었다.

은 겨레가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절통함에 가슴을 치며

몸부림치고있던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1994년 8월 15일을 계기로 제5차 범민족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도록 이끌어 주시었다.

주제83(1994)년 8월 4일과 5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해당 부분의 일군에게 범민족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이번이 진행되는 8.15범민족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범민족대회인것만큼 수령님의 전민족대단결사상을 받들어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간다는것을 과시하도록 특색있게 개최 하는것이 좋겠다고 가르쳐 주시었다.

이리하여 그해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5차 범민족대회가 평양과 서울, 도쿄에서 진행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해방 50돐이 되는 1995년에 도 민족통일대추전을 성대히 진행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도록 하시었다.

주제84(1995)년 1월 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해당 부분의 책임일군들에게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유훈을 하루빨리 실현하여 조국통일 위업을 앞당기는데 모든 힘

을 다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그 다음날인 1월 2일과 4일에도 일군들에게 조국통일사업과 관련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조국해방 50돐이 되는 1995년에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주제85(1996)년 11월 24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해당 부분의 책임일군들에게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유훈을 하루빨리 실현하여 조국통일 위업을 앞당기는데 모든 힘

을 다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그 다음날인 1월 2일과 4일에도 일군들에게 조국통일사업과 관련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조국해방 50돐이 되는 1995년에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주제85(1996)년 11월 24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해당 부분의 책임일군들에게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유훈을 하루빨리 실현하여 조국통일 위업을 앞당기는데 모든 힘

을 다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그 다음날인 1월 2일과 4일에도 일군들에게 조국통일사업과 관련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조국해방 50돐이 되는 1995년에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사들의 정치사상적수준에 있어서 통일운동사상 처음으로 되는 대정치추진이었다.

이 대회에는 추진사상 처음으로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로 범민련 남측본부와 《전국련합》, 《한총련》과 민주로총의 대표들, 민주로총 노동자통일촉진추진단이 참가하였다. 또한 세계 여러나라와 지역들에서 온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하면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3자연합대회,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9범민족회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작곡식, 북과 남, 해외통일예술추진 및 체육행사, 조국통일상 수여식, 북남로동자추진경기 등을 비롯하여 다채롭고 특색있는 정치, 문화, 체육행사가들 큰 규모에서 진행되었다.

이렇게 8.15를 계기로 범민족대회가 성대히 개최됨으로써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르러 더욱 힘있게 추진되게 되었다.

본시기자 주일봉

뜻깊은 탄생일에 도

축원의 인사를 받으시면서도

주제62(1973)년 2월 15일, 이날도 은 하루 나라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깊은 밤에도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고 사업을 의논하시었다.

벽시계가 2월 16일 새날을 알려자 일군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에게 삼가 축원의 인사를 올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동무들이 나에게 주는 축하를 조국을 통일하여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는 부락으로 알고 받겠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같길은 아직도 멀고 협하다고, 그러나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남녘 동포들이 그림 다시며

주제64(1975)년 2월의 탄생일을 접무실에서 보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저녁무렵 어느 한 단위를 찾으시고 그곳 일군들과 함께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이날 저녁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동무들을 볼 때마다 남조선인민들이 그림과 남쪽에서 수난받는 인민들을 그리시며 조국통일을 위해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은 정녕 은 겨레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따라야 할 위대한 태양의 품이라는것을 다시금 새겨안았다.

통일을 위해 열밤도 새겠다고 하시며

주제65(1976)년 2월 16일 저녁 어느 한 단위의 일군들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늘 밤을 동무들과 보내기로 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다른 날도 아닌 자신의 탄생일에 일군들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밤도 조국통일 문제를 놓고 잠 못이루신다고, 조국통일을 더이상 늦출수 없다고 교시하시었다.

본시기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동무들이 나에게 주는 축하를 조국을 통일하여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는 부락으로 알고 받겠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같길은 아직도 멀고 협하다고, 그러나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림 다시며

주제64(1975)년 2월의 탄생일을 접무실에서 보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저녁무렵 어느 한 단위를 찾으시고 그곳 일군들과 함께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이날 저녁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동무들을 볼 때마다 남조선인민들이 그림과 남쪽에서 수난받는 인민들을 그리시며 조국통일을 위해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은 정녕 은 겨레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따라야 할 위대한 태양의 품이라는것을 다시금 새겨안았다.

잠시 동안을 두시었던 그이께서는 나 도 통일문제를 두고 잠들수 없어 동무들을 찾았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업들을 하나하나 밝혀 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조국통일을 위해서라면 이 런 밤을 열밤도 새겠다고, 민족분열의 비운을 가시기 위해 우리 함께 일을 잘 해나가자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본시기자

민족의 념원람아 세워주신 통일가

민족분열의 비극이 짙게 어리웠는 판문점에는 통일가가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주제73(1984)년 초가을 판문점에 있는 판문각이 협소한것을 고려하시어 일군들에게 통일행사들을 원만히 치를수 있는 집을 한채 잘 지을데 대하여 과업을 주시고 친히 설계도면도 보아주시였으며 건설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시었다.

주제85(1996)년 11월 24일 판문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친필비앞에서 일군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통일가에 둘러하시었다.

통일가의 내부를 일일이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그 건설유래와 통일

각에 깃들어있는 가지가지 이야기들을 감회깊이 들려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건물 이름을 《통일가》이라고 지어주었다고 말씀하시었다.

《통일가》이라는 이름이 좋다고, 통일이 되기 전에는 통일을 념원하는 뜻에서 좋고 통일된 다음에는 통일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좋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시 지금도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하시였으면 민족분열의 한이 응집되어있는 판문점에 통일가까지 세워주시였는가.

통일가가 건설된 후 북남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통일가에 왔던 남측기자들은 회담장이 정말 멋있다고, 이남당

국자들은 통일의지가 없다보 니 통일을 상징하는 이런 건물을 지을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었다.

통일가에는 통일선각자들의 발자취가 력력히 어려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의 통일념원을 담아 판문점에 세워주신 통일가에서는 지난 시기 범민족대회와 각종 통일행사들이 진행되어 북과 남, 해외 은 겨레의 단합된 위력과 통일 의지를 과시하였었다.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주제 101(2012)년 3월 최대의 열정 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을 시찰하시면서 통일각을 돌아 보시고 우리 인민의 통일의지가 반영된 통일각을 잘 보

존관리하여 통일된 조국에서 살게 될 후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진정 민족의 분열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불같은 헌신과 로고로 조국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 은 오늘날도 통일각과 더불어 민방에 빛을 뿌리고있다.

본시기자 김혜성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주제81(1992)년 2월 어느날 점심무렵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조국에 온 총련중앙의 한 부의장부부를 친히 저택으로 불러 주시었다.

그들이고는 먼저 잔을 드시고 부의장동무와 부의장동무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자고 말씀하시었다.

너무도 황송하여 어쩔줄 몰라하는 부의장과 그의 부인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본의 정치체제며 경제형태, 조국과 총련의 예술발전문제 등에 대하여 흥미있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부의장동무가 든 속소에서는 일반식사만 내지 않는가고 물으시었다.

국밥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음식을 다 낸다는 부의장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료리사들이 음식을 편하게 만든다고, 부의장동무는 지금 들어있는 속소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라고 따듯이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부의장의 부인을 바라보시며 일본에서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것이 값이 높은가 아니면 원자재를 사다가 집에서 만들어 먹는것이 높은가고 물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음식을 사다가 집에서 만들어 먹는것이 돈이 적게 든다는 대답을 들으시고 아마 그럴것이라고 하시면서 아직 우리 음식에 익숙되지 않아서 구미에 잘 맞지 않을수도 있는

부의를 정경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늘 동무들과 식사나 한끼 같이하려고 오라고 하였다고 하시며 겸손하게 차린 상에 나왔게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쉬움이 짙게 내배인 안색으로 부의장에게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조국에 오는것이 좋겠다고, 그저 친정집에 오는것으로 생각하고 와서 마음놓고 참관도 하고 휴식도 좀 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물론 우리의 생활이 아직 유족하지 못하다보니 부족점도 있을수 있으나 조국은 어디까지나 조국이라고, 부족점들이 좀 있어도 탓하지 말고 조국에 오면 자신께서는 부의장동무를 언제나 반갑게 만나주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부의장동무의 부인도 매해 남편과 같이 조국에 와야 한다고, 일본에 돌아가면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하고 아이들도 잘 키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부의장동무의 부부가 앞으로 멀게 집에 오는것으로 생각하고 조국에 자주 오기를 바란다고 하시었다.

추수치는 격정과 감사의 정을 안고 올리는 그들부부의 인사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현판밖에까지 나오시어 따듯이 바래워 주시었다.

본시기자

《통일운동에서 거대한 업적을 쌓으신 지도자》

남녘 각계의 목소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길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러 리치는 남녘 겨레의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의 목소리는 영원한 메아리가 되어 끝없이 울려 퍼지고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민족자주정신과 민족애로 마련해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을 크게 빛내시었고 우리 민족끼리 기치로 6.15통일시대를 활짝 열어 7천만겨레의 전도로 크나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여러 분야에 걸쳐 상당한 식견을 갖추 고있으며 국제문제도 정확히 꿰뚫고있었다.》(남조선의 전 통일 부 장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을 길이가길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 할것이다.》(남조선의 현대그룹 회장)

《우리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이북민중만의 령도자가 아니라 전

체 조선의 령도자라고 믿습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 통일운동, 혁명운동에서 거대한 업적을 쌓은 지도자는 없습니다.》(남조선의 《백두청년회》 회장)

《두차례의 남북수뇌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조국통일의 확고한 리점표를 만들어 내신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력사적발걸음은 각계 민중들에게 영원히 기억될것입니다.》(남조선의 진 보련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발표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리점표를 수놓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업적과 로고는 력사가 기억할것입니다.》(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은 겨레를 자애로운 사랑의 한뫼에 안아주시고 이 땅위에 민족대단합의 숭고한 화폭을 펼쳐주시었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그이는 오늘날도 위대한 태양으로 영생하게되신다.

본시기자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진행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2월 8일 평양에서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5개년계획의 2022년도 과업과 우리식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투쟁강령, 대미대적강령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 관철을 위한 전진민적진군에 적극 이바지할 실천적문제들이 토의되었다.

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올해의 주요정책적과업들과 우리식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은 중점되는 난관과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고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배로 인도하는 향도의 기치이고 전진적 동력이라고 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올해의 결사전에 적극 떨쳐나설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전원회의는 올해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업들과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토의되었으며 이 에 기초하여 해당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본시기자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진행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2월 9일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원회의에는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2022년도 과업과 우리식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투쟁강령, 대미대적강령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 관철을 위한 전진민적진군에 적극 떨쳐나설 실천적문제들이 토의되었다.

본시기자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올해 주요정책적과업들과 우리식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철저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방도들을 반영한 해당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본시기자